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김신희(북한대학원대학교)·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민이 된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실태와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탈북 관련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 및 남북통일 이후 북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유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의 재판 없는 구속에 대해서는 남한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과 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독점적 소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반대 의견이 낮았다.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 인식에 가장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학교급별 및 유형’과 ‘한국 거주 기간’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탈북청소년의 북한 사회 경험으로 인한 시민성의 특성을 고려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탈북청소년, 시민성, 민주주의, 가치 인식, 민주시민교육, 통일, 사회통합

* 이 논문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3571).

1. 서론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4년 10월 말 현재 2만 7,253명¹⁾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형태가 가족단위 탈북으로 변화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2,466명²⁾의 탈북청소년이 전국의 7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정치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 이념과 체제를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체제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구성원이 충원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에 대한 지식과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갖춘 시민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민주적 시민성(市民性, citizenship)’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 시민성이란 민주주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 자질을 말한다.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민주주의 유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새롭게 한국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된 탈

1)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2) 교육부의 “2014년 탈북학생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2,183명의 탈북학생이 전국의 학교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생 1,128명(51.67%), 중학생 684명(31.33%), 고등학생 371명(17.00%)이며, 2013년 재학생(2,022명)에 비해 총 161명이 증가하였다. 이 통계에는 정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포함되었으나 민간대안교육시설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기준 통일부 자료에 소개된 민간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청소년 283명을 포함할 경우 국내에서 학업 중인 탈북청소년은 약 2,466명이다.

북청소년이 현재 남한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남한 사회 적응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통일된 미래에 남북한 정치통합 및 사회통합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래 정치사회의 한 주역이 될 탈북청소년³⁾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민주적 시민성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단순한 동질적 집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인 및 탈북청소년의 탈북 과정과 관련된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탈북청소년이 한국에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통일된 국가에서 함께 살아야 할 북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상식적인 개념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인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령기인 6~24세까지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정상적인 학령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대안학교 학생들의 연령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의 정규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탈북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조사 도구

이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한 2009년 국제시민성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⁴⁾에서 38개국 청소년의 시민성 측정을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⁵⁾에서 사용한 중·고등학생용 설문지를 탈북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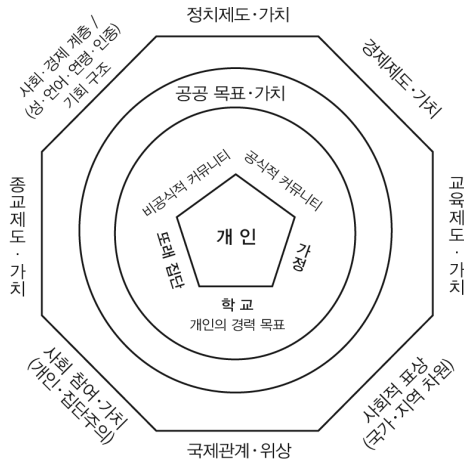
ICCS 연구는 1971년 IEA의 시민성 조사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1999년 1차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민성 조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CIVED의 연구 모형은 생태학적 발달 이론과 상황인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VED 연구 모형은 한 개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은 부모, 형제 등 가족 변인과 교사,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포함하는 학교 변인, 학교 안과 밖의 또래 집단

4) W. Schulz et al.,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10).

5)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6)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13)를 위해 조사한 데이터와 논문의 일부분을 활용하였다.

<그림 1> CIVED 연구 모형⁷⁾



변인, 지역사회의 이웃을 통해 그 사회 공공질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의 바깥쪽 영역인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제도와 기관, 절차 및 가치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자기가 속한 국가의 국제적 관계와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종, 성별, 연령,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기회와 사회경제적 계층체계 등도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CIVED의 연구 모형은, 시민성 교육이 학교에서 교사가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속한 학교와 이웃, 국가적 수준의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7) J. Torney-Purta et al.,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01)의 모형을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13쪽에서 변역한 모형을 인용함.

공동체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한 시민교육의 변수이고, 또한 청소년에게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 모형은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청소년 또한 청소년 시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IVED의 연구 모형이 제시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질서의 영향 요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다른 이념과 질서 체제에서의 삶에서 받은 각각의 다른 영향이 어떻게 현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남한 거주 기간’이라는 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ICCS의 시민성 조사 틀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 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지 영역은 시민지식 평가척도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대 내용 영역에 대한 이해(knowing),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⁸⁾ ICCS의 정의-행동 영역 문항은 내용 영역 4개와 하위 영역 4개를 모두 포함하여 1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의-행동 영역의 문항은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정체성, 시민 참여라는 4대 내용 영역에 대한 가치·신념, 태도, 행위 의지, 실천 행위의 4개 하위 영역을 측정한다.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는

8)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61~62쪽.

<표 1> 분석 변인 분류체계

구분	변수 요인	세부 변수 항목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남, 여) · 학교급별(중·고등학교, 대안학교) · 부모 학력(고졸, 대졸) · 성적(상·중·하) · 경제 수준(상·중·하)
	탈북 관련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거주 기간(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 출생 국가(북한, 제3국) · 거주 형태(일반 가정, 기숙사, 그룹홈)
종속변수	민주적 가치·신념 및 태도	· 민주적 가치 및 권리에 대한 인식

민주적 가치와 태도 및 시민적 참여를 측정하는 정의·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민주적 가치·신념 및 태도 영역 중에서도 이 논문의 주제인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권리 특히, 인권과 관련된 자유주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성 실태를 파악하고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ICCS의 시민성 조사와 남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 시민성 조사⁹⁾ 및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¹⁰⁾ 등

9) 박정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이정우,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0) 김명정,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문경협, 『민주시민 자질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원태,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체험 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지,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성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류혜영,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 영역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위정,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급별, 부모 학력, 성적, 경제 수준을, 탈북 관련 변인으로는 한국 거주 기간과 출생 국가, 거주 형태를 추출하였다. 연령은 학교급별과 중복되고 탈북청소년의 특성상 대안학교 재학률이 높아 연령보다는 좀 더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학교급의 차이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분류체계와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인 모집단은 2012년 4월1일 기준 전국의 정규 중·고등학교와 민간대안교육시설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998명이다.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을 보면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재학생이 1,204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는 361명, 고등학교는 437명이다. 이 통계의 정규학교에는 정규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와 학력인가 대안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전일제 민간대안교육시설(이하 대안학교에 포함하여 지칭함)에 다니는 청소년은 210명으로 전체의 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수의 9.53%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적으로 정규학교에 분류되어 통계 처리된 대안학교 2개교가 사실상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임을 감안해 대안학교로 분류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은 424명으로, 전체 재학 탈북청소년 중 19.3%나 되어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교육부가 2012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해 5월에 발표한 탈북 학생의 재학 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표집한 후 전국 433명의 탈북청소년에게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 교사를 통해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거나 대안학교의 경우 선생님과 학생회장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에서 비비례 할당표집(non-proportional quota sampling)으로 하였다. 할당표집법은 사회과학조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세분하는 점이 층화표본추출과 비슷하지만 할당표본추출에서

<표 2> 학교 유형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602	602	162	189	212	225	95	115	2,202
	1,204		351		437		210		
	1,992						210		

주 1: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2012년 4월 기준).

주 2: 정규학교에 탈북청소년 대상 특성화학교와 학력인가대안학교도 포함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4월 기준).

는 체계적 표본추출을 하지 않고 임의표본추출을 사용한다.¹¹⁾ 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거주 및 학교 분포의 특성과 연구의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에서의 층화추출법이라고 불리는 할당표본추출법 중에서 비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학교 급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재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그 결과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전국의 정규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가운데 중학교 44개교 176명, 고등학교 83개교 147명, 대안학교 3개 학교에 110명이 표집되었다.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고 46개교 97명, 특성화고 37개교 50명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표집률은 중학생이 전체 311명 가운데 176명으로 56.6%, 고등학교가 263명 중 147명이 표집되어 55.9%이며 대안학교가 424명중 110명이 표집되어 25.9%의 표집률을 보였다. 표본 집단 전체의 크기는 433명으로, 이는 현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모집단 총 998명의 43.8%에 해당하고, 재학 중인 학교 374개교¹²⁾의 34.8%에 달하는 130개 학교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집단의 학교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303부이고 회수율은 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통계 처리 후 늦게

11) 김현철, 『표본의 추출과 분석』(서울: 교육과학사, 2007), 74쪽.

12)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정규 중·고등학교 367개교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지원사업에 지원한 학교 11개교를 합하여 374개교로 계산하였다.

<표 3> 표본 집단의 학교 유형 및 지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합계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서울	16	80	23	63	2	75	41	218
경기	12	39	10	15	1	35	23	89
인천	6	31	6	13			12	44
강원	1	3	7	9			8	12
경남	3	7	13	17			16	24
경북	2	4	7	10			9	14
충남	2	7	7	8			9	15
전남	2	5	4	4			6	9
전북	0	0	5	5			5	5
제주	0	0	1	3			1	3
합계	44	176	83	147	3	110	130	433

주: 각 도의 경우 광역시를 포함하였고 충남의 경우 세종시도 포함하였다.

도착한 것을 제외하고 총 287부를 유효한 조사지로 집계하여 최종 통계 처리하였다.

이는 탈북청소년 모집단¹³⁾의 중학교 재학생 311명 중 116명으로 37.3%에 해당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263명 중 85명으로 32.3%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의 경우 총 424명 중 86명으로

13) 이 연구의 조사 대상 모집단의 분류 기준은 교과부 발표 통계자료(2012.4)와 다르다. 교과부 통계자료에서 정규학교로 포함된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와 학력인가 대안학교(여명학교)를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구분보다는 사실상의 학교 성격에 비추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정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청소년 모집단의 수는 위의 두 학교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치이다.

<표 4> 표집률 및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구분	모집단	표본 집단(표집률)	유효 집계 응답자(조사 성공률)
중학교	311	176(56.6)	116(65.9)
고등학교	263	147(55.9)	85(57.8)
대안학교	424	110(25.9)	86(78.2)
계	998	433(43.8)	287(66.3)

20.4%이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모집단 총 998명 중 287명, 모집단의 28.8%가 유효 집계되어 통계 처리되었다.

조사 성공률은 중학교 65.9%, 고등학교 57.8%, 대안학교 78.2%이며 전체적인 조사 성공률은 66.3%이다. 모집단에 대비한 표집률과 조사 성공률은 <표 4>와 같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고 변인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응답자 특성

(1) 인구사회학적 배경 특성

유효 집계 처리된 전체 응답자 287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

학생이 116명으로 40.4%이고 여학생은 171명으로 59.6%이다. 연령 분포는 12~14세가 66명으로 23.0%, 15~17세가 87명으로 30.3%, 18~20세가 105명, 36.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 집단이다. 이는 탈북학생이 학령에 비해 1~2년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연령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21~25세가 27명으로 9.0%를 차지하는 것도 역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나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 및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학생이 116명, 40.4%로 가장 많은 응답자 집단이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59명으로 20.5%이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26명으로 9.05%이며, 대안학교가 86명으로 30.0 %의 비율이다.

응답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가 142명, 49.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75명, 26.0%이다. 세 번째로 많은 곳이 경상도(광역시 포함) 23명 8.0%이다. 실제 탈북학생의 소재 및 설문지 배포 순위는 서울, 경기, 인천 순이나,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의 응답자는 17명으로 6.0%이며 상위 네 번째이다. 충청도(광역시 포함) 10명 4.0%, 강원도 9명 3.0%, 전라도(광역시 포함) 8명 3.0%, 제주도특별자치도 3명 1.0% 순이다.

부모 학력 수준은 부와 모의 학력 중 높은 학력을 반영한 것으로서 고졸 이하가 130명으로 45.0%이고, 전문대졸 이상이 76명, 27.0%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북한에서의 학력인지 남한에서의 학력인지의 구분은 조사하지 않았다. 잘 모름 및 무응답이 81명 28.0%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부모가 사망하여 무연고 청소년으로 입국한 경우 부모가 계시지 않으므로 잘 모름 및 무응답 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실제로 응답

<표 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인구사회학적 변인)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87	100.0
성별	남자	116	40.4
	여자	171	59.6
연령(만)	12~14세	66	23.0
	15~17세	87	30.3
	18~20세	105	36.6
	21-25세	27	9.0
	무응답	2	0.7
학교급 및 유형	중학교	116	40.4
	고등학교	59	20.5
	특성화학교	26	9.05
	대안학교	86	30.0
학교 소재 지역	서울특별시	142	49.0
	인천광역시	17	6.0
	경기도	75	26.0
	강원도	9	3.0
	경상도(광역시 포함)	23	8.0
	전라도(광역시 포함)	8	3.0
	충청도(광역시 포함)	10	4.0
제주도특별자치도	3	1.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30	45.0
	전문대졸 이상	76	27.0
	잘모름 및 무응답	81	28.0
경제적 수준	상	4	1.0
	중	204	71.0
	하	71	25.0
	무응답	8	3.0
학업 성적	상	31	10.8
	중	118	41.1
	하	132	46.0
	무응답	6	2.1

지를 보면 그룹홈 거주 학생들이 부모 관련 응답에 잘모름 및 무응답 처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를 추정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은 ‘상’이 4명 1.0%로 매우 극소수이고, ‘중간’이 204명 71.0%로 대다수가 ‘중간’이라 응답했고, ‘하’가 71명으로 25.0%를 차지한다. 무응답은 8명으로 3.0%이다. 이러한 응답은 탈북청소년이 자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통계 결과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객관적인 경제적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총수입은 100만 원 이하 52.7%(50만 원 이하 18.4%), 101~200만 원 38.1%, 200만 원 초과 9.2%(400만 원 초과 1.0%)이며, 실업률은 10.0%로 경제활동 인구 190명 중 취업자 171명(90.0%), 실업자 19명(10.0%)으로 남한 주민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¹⁴⁾

탈북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이 31명으로 10.8%이다. ‘중간’은 118명으로 41.1%이고, ‘하’는 132명으로 46.0%이다. 87.1%나 되는 대다수 탈북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응답은 6명으로 2.1%이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학업성적 결과와 비교적 근접한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의 성적은 한국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의 학업성적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¹⁵⁾ 현실이기 때문이다.

14)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실업·소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0년 하반기』, 통권 제5호(2011.1.31), 15~16쪽.

15) 한만길 외,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유효 집계 처리된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표 5>와 같다.

(2) 탈북 관련 특성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가 63명으로 22.0%이고, 1년 이상~3년 미만이 100명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년 이상~5년 미만이 50명으로 17.4%이고 5년 이상~7년 미만은 36명 12.5%이며 7년 이상이 31명으로 10.8%였고 무응답은 7명 2.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즉 56.9%인 163명이 3년 미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생국을 보면 북한 출생이 262명으로 91.3%의 비율을 나타내 응답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 출생은 16명으로 5.6%에 불과했으며 기타 및 무응답이 9명으로 3.1%이다. 최근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출생 학생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져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는 51.8%, 2014년에는 6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에는 초등학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출생 학생이 많이 표집되지 않았다. 중학교에 16명의 중국 출생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등학생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중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유한 나라 중 가장 장기간 체류한 국가가 중국일 경우는 대체로 1~3개월을 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학교통일교육연구팀, 『새터민학생의 입국 초기 학력진단평가 자료 개발』(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6);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114~115쪽.

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생 16명 및 북한 출생 중국 장기 경유 116명을 합하면 132명이 중국에서 장·단기 체류 경험을 하였다. 남한 입국 과정에서 체류하는 제3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주로 장기 체류의 형태였으며 제3국 체류 기간이 가장 긴 나라도 중국이었다.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가장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와 몽골에서 대체로 1~3개월 정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좀 더 장기간의 경우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오래 체류한 제3국 중 두 번째 국가는 태국으로 51명이 응답하였다. 그다음이 라오스 7명, 몽골 6명, 캄보디아 4명, 베트남 2명, 미얀마 2명으로 나타났다. 1개월 단기 체류가 가장 많지만 2~6개월간 체류한 경우도 상당수였고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도 몇 명 있었다. 4년 5개월간 장기 체류한 경우도 1명 있었지만 중국이 아닌 제3국이 장기 체류국인 경우에 제3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주거 형태는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201명, 70.0%로 가장 많은 주거 형태였다. 그다음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56명으로 19.5%였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생활공동체)에 거주하는 학생이 18명으로 6.3%를 차지했다. 기타는 8명으로 2.8%이고 무응답이 4명으로 1.4%의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응답 내용을 보면, 동거하는 경우와 친구와 함께 산다는 응답이 있었다. 2000년대에 부모, 형제 등 가족 없이 혈혈단신 남한에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¹⁶⁾이 급증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숙사가 있는 대안

16) 1999년 이후 남한에 들어온 탈북청소년 중 무연고 청소년의 수를 누적 집계한 통계는 2012년 5월 31일 현재 572명이다. 하나원 퇴소 당시 만 20세 미만이면서 직계존속 없이 남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 청소년은 무연고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5월 31일 현재 20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무연고 탈북청소년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45명이다.

<표 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탈북 관련 변인)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87	100.0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63	22.0
	1년 이상~3년 미만	100	34.9
	3년 이상~5년 미만	50	17.4
	5년 이상~7년 미만	36	12.5
	7년 이상	31	10.8
	무응답	7	2.4
출생국	북한 출생	262	91.3
	중국 출생	16	5.6
	기타 및 무응답	9	3.1
주거 형태	일반 가정	201	70.0
	그룹홈	18	6.3
	학교 기숙사	56	19.5
	기타	8	2.8
	무응답	4	1.4

학교나 그룹홈에 거주하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일부 나이가 많은 무연고 청소년은 친구끼리 함께 살거나 남녀 간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 형태에도 그러한 현실이 반영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 간의 특성과 경험의 차이로 인한 시민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하에 다양한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는

한국 거주 기간과 최근 나타나는 출생 국가의 차이,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가정 환경적 요소가 반영된 주거 형태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학생의 탈북과 관련한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이 민주사회의 근본적 구성 원리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위 12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4점 척도로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은 대체로 민주주의적 가치 및 권리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기본권적인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상의 점수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 받는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 의사를 표하고 개인의 인권, 특히 재판 없는 구속이라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청소년의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① 민주주의적 가치 인식 실태

탈북청소년 전체의 응답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에 대해 92%

<표 7>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래의 의견에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0 (3.5)	13 (4.5)	135 (47.0)	129 (44.9)	287	3.33	0.724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44 (15.3)	112 (39.0)	100 (34.8)	31 (10.8)	287	2.41	0.876
3) 대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38 (13.2)	95 (33.1)	100 (34.8)	53 (18.5)	286	2.59	0.939
5)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6 (2.1)	28 (9.8)	133 (46.3)	120 (41.8)	287	3.28	0.723
6)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6 (2.1)	65 (22.6)	134 (46.7)	82 (28.6)	287	3.02	0.773
8) 모든 시민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0 (3.5)	39 (13.6)	117 (40.8)	121 (42.2)	287	3.22	0.808
9)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2.4)	33 (11.5)	133 (46.3)	114 (39.7)	287	3.23	0.746
1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21 (7.3)	47 (16.4)	138 (48.1)	80 (27.9)	286	2.97	0.860
11)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의 소득 차이는 적어야 한다.	7 (2.4)	51 (17.8)	132 (46.0)	96 (33.4)	286	3.11	0.776

가 동의하여 가장 많이 동의한다. 이것은 남한청소년들에게도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은 모든 사람의 사회정치적 권리 존중으로 88.2%이고 법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86.1%로 세 번째,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82.9%로 네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탈북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자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금지에 대한 동의는 45.6%로 항목 중 가장 동의율이 낮고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에 대한 동의는 53.5%로 역시 비교적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동의를 보였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통계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본능과 생활의 경험 및 인간의 인지적 발달에 의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제도적 원리와 법에 대한 이해는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에는 사회정치적 제도와 원리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회교과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회교과 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의 그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본적인 제도와 원리를 다루는 ‘일반사회’ 과목이 없는 북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사회를 체험해보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치지도자의 가족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탈북소년의 허용적인 태도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¹⁷⁾ 북한은 초기 사회화와 평생에 걸친 성년의 정치사회화를 중요시한다.¹⁸⁾

17)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58~159쪽.

이러한 정치사회화는 학교 교육과 평생을 통한 조직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은 아직 어려서 자아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아주 이상적인 정치사회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여¹⁹⁾ 아주 어릴 때부터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 개인숭배교육을 실시한다.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학습 및 교양과 교육 과정을 통해 김일성 가계 우상화 내용 중심인 혁명 활동 과목과 ‘조선역사’를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핵심 교과로 배우고 이를 철저히 내면화하기 때문에 김일성의 대를 이어 후계자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의 언론 독점 금지에 대해 낮은 동의율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북한 정부와 당에 의해 독점된 북한 언론 현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정부에 의한 전적인 언론 독점과 통제 상황에 익숙하고 이러한 현상이 북한만의 특이하고 부당한 제도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설문조사 대상 중 한 탈북청소년을 개인적으로 면담했을 때 언론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사도 모두 국가에 속해 있는 것 아니냐? 개인이 언론을 소유할 수 있느냐?”하는 반문을 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의 자유가 인권 보장과 민주적 사회 실현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론이 독점되

18)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서울: 범문사, 1982); 김학준, 『한국정치론』(서울: 한길사, 1983), 245쪽에서 재인용.
 19) J. Pak,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ducational Goals in North Korea: An Analysi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Works on Education(1946~1986)*,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Stanford University, 2005, p.27.

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의 채널을 국가와 당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북한에서 늘 보아왔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와 ‘정부와 대기업의 언론사 소유 금지’에 관한 탈북청소년의 인식은 남한청소년들의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태도 중 남한청소년과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은 탈북 중학생이 42.2%, 탈북 고등학생이 42.4%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는 2011년 남한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²⁰⁾ 남한 중학생의 응답률 62%와 남한 고등학생의 66%에 비하면 거의 20% 정도 낮은 동의율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에 대한 동의율도 탈북 중학생이 55.7%이고 탈북 고등학생이 64.7%인 데 비해서 남한 중학생은 79%이고 남한 고등학생은 87%로 나타나 남한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청소년이 이 두 가지 항목에 반대하는 비율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이 항목에 대한 반대 비율은 20% 이상의 격차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즉,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과 정부와 대기업의 언론 독점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20)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② 민주적 가치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변인별 인식 차이

i)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차이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탈북과 관련된 변인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통계 처리해보았다. 탈북청소년 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인은 ‘학교급 및 유형’이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사회정치적 권리 존중’, ‘폭력적 항의 반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교급 및 유형’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5$).

차이의 경향성은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민주적인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의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비교해도 낮게 나타나 민주적 가치에 대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이 대체로 일반 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과 비교해서 출발점 변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부터 학교 교육 경험 등이 부족하고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교육공백 기간이 길어져서 한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령보다 나이가 너무 많고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하여 일반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워져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의해 축적된 학업량의 절대적 부족과 어릴 때부터의 불안한 삶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안학교는 탈북청소년의 요구에 대응하여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적

< 표 8 >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인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사회 정치적 권리 존중	공개적 정치 비판 가능	자유로운 정치 지도자 선출	정치적 향의 집회 가능	폭력적 향의 반대	빈부 간 소득 격차 감소	
전체	92.0	45.6	53.5	88.2	75.3	82.9	86.1	76.2	79.7	
성별	남학생	89.7	46.6	55.7	87.9	72.4	81.0	83.6	76.7	75.9
	여학생	93.6	45.0	52.0	88.3	77.2	84.2	87.7	75.4	81.9
	t값 (유의도)	-1.148 (0.252)	0.253 (0.800)	0.598 (0.551)	-0.096 (0.924)	-0.919 (0.359)	-0.700 (0.485)	-0.982 (0.327)	0.379 (0.705)	-1.081 (0.281)
학교 급별	중학교	92.2	42.2	55.7	87.1	73.3	83.6	80.2	75.0	79.3
	고등학교	97.6	42.4	64.7	94.1	85.9	92.9	98.8	83.5	88.1
	대안학교	86.0	53.2	39.5	83.7	67.4	72.1	81.4	70.6	72.1
	F값 (유의도)	3.978 (0.020)	1.523 (0.220)	5.792 (0.003)	2.335 (0.099)	4.187 (0.016)	6.840 (0.001)	8.638 (0.000)	2.052 (0.130)	3.421 (0.034)
부모 학력	고졸 이하	93.8	46.2	58.5	91.5	80.0	84.6	85.4	71.5	80.8
	대졸 이상	93.4	47.4	47.4	86.8	73.7	84.2	86.8	78.9	81.6
	t값 (유의도)	0.120 (0.904)	-0.168 (0.867)	1.544 (0.124)	1.019 (0.310)	1.021 (0.309)	0.077 (0.939)	-0.289 (0.773)	-1.384 (0.168)	-1.142 (0.887)
경제 수준	상	100.0	25.0	50.0	100.0	75.0	100.0	100.0	100.0	75.0
	중	90.7	46.6	51.0	86.8	77.5	81.4	83.8	75.0	79.4
	하	97.2	46.5	60.6	93.0	70.4	88.7	93.0	80.3	83.1
	F값 (유의도)	1.144 (0.320)	0.365 (0.694)	0.775 (0.462)	0.882 (0.415)	0.915 (0.402)	1.121 (0.327)	1.696 (0.185)	0.827 (0.439)	0.260 (0.771)
성적	상	93.5	51.6	58.1	90.3	83.9	90.3	87.1	71.0	77.4
	중	93.2	44.9	46.6	87.3	70.3	78.0	86.4	75.4	78.8
	하	90.9	45.5	57.6	88.6	78.0	86.4	85.6	78.0	81.1
	F값 (유의도)	0.274 (0.761)	0.230 (0.795)	1.556 (0.213)	0.125 (0.882)	1.664 (0.191)	2.210 (0.112)	0.032 (0.969)	0.352 (0.704)	0.230 (0.795)

주: P < 0.05에서 유의미함.

인 가치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위한 시간과 교육과정의 편성이 어렵
운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중 성별, 부모 학력, 가정의 경제
적 수준, 학생의 학업성적은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i) 탈북 관련 변인에 의한 차이

탈북청소년이 탈북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가지게 된 특성을 나타내
는 변인으로 한국 거주 기간과 출생국, 주거 형태를 선정하여 이 변인
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 중 ‘정치지
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항목에서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
직 진출과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를 금지하는데 동의하는 경향
이 높아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에 대해서 1년 이상~3년 미만
거주 탈북청소년의 경우 39.0%가 동의했지만 3년 이상~5년 미만 거
주한 청소년의 경우 62.0%가 동의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더 오
래 거주한 5년 이상~7년 미만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44.4%로 동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7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54.8%
로 다시 약간 동의하는 비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도 1년
미만 거주 탈북청소년의 경우 30.2%로 매우 낮았다가 1년 이상~3년
미만 거주한 경우 56.0 %로 급증했고 3년 이상~5년 미만 거주한 청

소년의 경우 62.0%, 5년 이상~7년 미만 거주한 경우 63.9%로 동의하는 경향성을 지속하다가 7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61.3%로 약간 동의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항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유지되다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지만 다른 항목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5년 이상이 되거나 또는 항목별로는 7년 이상이 되면서 동의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중 가치관의 변화는 시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¹⁾ 북한에서 형성된 특정 가치관이 탈북 후 급격히 약화되다가 제3국에서 다시 강화되고 한국 입국 후 초기에 약화되다가 적응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북한식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형성된 가족주의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탈북 후 약화되다가 제3국 생활 경험 과정에서 약화 정도가 낮아지는 변화가 있고 한국에 입국 직후에 약화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물질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에 강화나 유지 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의 측정 결과와 변화의 양상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변화의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21) 이순형·진미정,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3권 제3호(2006), 14쪽, 1~19쪽.

<표 9>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인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인륜사 소유 금지	사회 정치적 권리 존중	공개적 정치 비판 가능	자유 로운 정치 지도자 선출	정치적 항의 집회 가능	폭력적 항의 반대	빈부 간 소득 격차 감소
전체	92.0	45.6	53.5	88.2	75.3	82.9	86.1	76.2	79.7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82.5	38.1	30.2	87.3	69.8	77.8	69.8	76.2
	1년 이상~ 3년 미만	94.0	39.0	56.0	87.0	71.0	85.0	87.0	79.0
	3년 이상~ 5년 미만	96.0	62.0	62.0	90.0	84.0	88.0	90.0	82.0
	5년 이상~ 7년 미만	94.4	44.4	63.9	88.9	86.1	86.1	91.7	80.6
	7년 이상	93.5	54.8	61.3	87.1	77.4	77.4	87.1	77.4
	F값 (유의도)	2.398 (0.051)	2.466 (0.045)	4.811 (0.001)	0.087 (0.986)	1.614 (0.171)	0.831 (0.507)	1.326 (0.261)	0.648 (0.629)
출생 국	북한	92.7	46.2	54.4	88.5	75.2	83.6	86.3	79.4
	중국	87.5	37.5	37.5	87.5	62.5	75.0	81.2	86.7
	t값 (유의도)	0.888 (0.375)	0.558 (0.577)	-0.424 (0.672)	-0.681 (0.497)	0.769 (0.442)	0.674 (0.509)	1.315 (0.190)	0.127 (0.899)
주거 형태	일반 가정	95.0	44.3	56.7	90.0	76.6	87.6	88.6	81.1
	그룹홈	100.0	50.0	55.6	100.0	88.9	88.9	88.9	94.4
	학교 기숙사	82.1	50.0	48.2	82.1	66.1	67.9	78.6	75.0
	F값 (유의도)	6.361 (0.002)	0.354 (0.702)	0.679 (0.508)	2.609 (0.075)	2.281 (0.104)	6.647 (0.002)	1.927 (0.148)	2.382 (0.094)

주: P < 0.05에서 유의미함.

요인 및 경험 등 다양할 수 있겠지만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한국에서 거주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도 특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치관의 변화 양상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 형태’에 따라 ‘의사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동의는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인 ‘그룹홈’과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동의했고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탈북학생들의 동의 비율이 82.1%로 가장 낮았다.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의 권리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그룹홈(88.9%)과 일반 가정(87.6%)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동의비율은 67.9%로 가장 낮았다. 이 연구의 응답자 중,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44명, 78.6%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7명으로 12.5%이며 중학교 학생은 5명으로 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지도자 선출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의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인식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12가지 하위 항목 중 특히 신체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다. 이는 정부와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및 비밀 보장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인식을 물어본 것이다.

2001년 9월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 이후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숭고한 가치로 주창해왔던 민주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테러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져왔다. 우리사회도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체제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침해되는 나라이므로 탈북청소년이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인식 실태

‘경찰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43.9%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의 56.1%는 설사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재판 없는 구속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 제한 항목 중에 탈북청소년의 반대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이 바로 재판 없는 인신구속이다.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검찰, 경찰 등)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검사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59.9%로 나타나 재판 없는 구속보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의 재판 없는 인신구속에 비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는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국가 안전 위협 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래의 의견에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4) 경찰은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54 (18.8)	107 (37.3)	84 (29.3)	42 (14.6)	287	2.60	0.955
7) 국가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게 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검사해야 한다.	23 (8.0)	92 (32.1)	127 (44.3)	45 (15.7)	287	2.32	0.834
12)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언론, 출판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25 (8.7)	71 (24.7)	136 (47.4)	54 (18.8)	286	2.23	0.857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대통령과 행정부)는 언론(신문, TV방송 등), 출판(잡지, 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66.4%가 동의하여 인신구속이나 통신비밀의 침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에 대해서 가장 관용적인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10>과 같다.

②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변인별 인식 차이

i)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차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는 언론과 출판의 통제 항목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의한 재판 없는 인신구속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탈북 여학생보다 탈북 남학생이 국가 안전 위협 용의자에 대한 재판 없는 인신구속에 훨씬 더 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43.9%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으로 구분해서 보면 탈북 중학생은 44%, 탈북 고등학생은 40%가 재판 없는 구속에 동의하였다. 이에 비해 남한청소년은²²⁾ 중학생 52%와 고등학생 48%가 국가 안전 위협 용의자에 대한 재판 없는 구속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보다 재판 없는 인신구속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민주적이 못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와 인권의식에 대해 교육받지도 못하고 또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온 탈북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남한청소년보다 더 높은 인권의식 특히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권리 의식을 보인 것은 의외이다.

그러나 다른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에서는 남한청소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서 특별히 재판 없는 인신구속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강한 반대 태도는 불법구금과 체포 등 북한의 극심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북한적 현상’의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trauma)가 반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중 61.4%가 개인의

22)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표 1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차이

(동의하는 비율로, 단위는 %)

구분		국가 안전 위협 시 재판 없이 구속	국가 안전 위협 시 통신내용 사찰	국가 안전 위협 시 언론출판 통제
전체		43.9	59.9	66.4
성별	남학생	37.1	62.1	65.2
	여학생	48.5	58.5	67.3
	t값(유의도)	1.939(0.054)	-0.607(0.544)	0.356(0.722)
학교급 및 유형	중학교	44	57.8	67.8
	고등학교	40	63.5	63.5
	대안학교	47.7	59.3	67.4
	F값(유의도)	0.508(0.602)	0.347(0.707)	0.228(0.796)
부모 학력	고졸 이하	45	59.2	63.5
	대졸 이상	40.8	61.8	74.7
	t값(유의도)	-0.852(0.395)	0.689(0.491)	1.641(0.103)
경제 수준	상	75	75	25
	중	46.1	61.8	71.4
	하	33.3	55.6	56.9
	F값(유의도)	2.617(0.075)	0.607(0.546)	4.225(0.016)
학업 성적	상	45.2	64.5	64.5
	중	44.1	57.6	68.6
	하	41.7	61.4	66.4
	F값(유의도)	0.104(0.902)	0.318(0.728)	0.123(0.884)

주 1: P < 0.05에서 유의미함.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이다.²³⁾ 유형별로는 불법구금(60.9%)이 가장 많고 불법체포(6.5%)와 납치·억류·유괴(3.7%) 등 신체의 자유권 침해

23) 윤여상 외, 『북한 인권 백서』(서울: 북한인권정보데이터베이스, 2012), 140~141쪽.

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사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9.9%의 사례가 200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⁴⁾ 2000년대는 이 연구의 조사 대상 탈북청소년이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혼란을 다잡을 시기였다. 이 시기 북한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인신의 구속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이 국가의 안전이 위협하다 하더라도 재판 없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항상 공안기관의 단속과 체포의 위협 때문에 숨어서 불안하게 지낸 경험이 인식구속에 반대하는 의식을 형성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탈북청소년 내의 어떤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2009년 ICCS 시민 역량 조사에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의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러시아의 중학생은 국가 안전 위협 용의자에 대한 재판 없는 구속에 대해서 거의 70%의 높은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²⁵⁾ 탈북청소년의 44% 동의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에 온 탈북청소년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과거 동구 국가의 청소년의 국가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 제한에 대해 상당한 의

24) 위의 책, 142쪽.

25) W. Schulz et al.,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pp.91~92.

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탈북청소년은 언론과 출판의 통제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동의 수준의 순서는 상·중·하의 순이거나 반대의 순으로 일관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한 학생들의 75%가 동의하여 가장 높았고 경제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43.1%가 동의했다. ‘중’이라고 평가한 탈북청소년은 28.6%의 낮은 동의율을 보여 국가 안보의 위협에도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에 가장 강한 반대 태도를 나타냈다.

ii) 탈북 관련 변인에 의한 차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탈북 관련 변인인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국가 안전이 위협할 때 개인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정부가 사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년 미만된 탈북청소년의 57.1%가 개인통신내용의 사찰에 찬성했고 1년 이상~3년 미만 거주자 71%, 3년 이상~5년 미만 46%, 5년 이상~7년 미만 55.6%, 7년 이상 58.1%가 동의하였다. 이것은 거주 기간 이외의 다른 변인 예를 들면 학교급이나 유형, 즉 대안학교 변인이나 성별 또는 연령 등의 변인이 통제되지 않아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12> 탈북 관련 변인에 의한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차이
(동일하는 비율로, 단위는 %)

구분		국가 안전 위협 시 재판 없이 구속	국가 안전 위협 시 통신내용 사찰	국가 안전 위협 시 인론출판 통제
전체		43.9	59.9	66.4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39.7	57.1	63.5
	1년 이상~3년 미만	45	71	71.0
	3년 이상~5년 미만	44	46	70.0
	5년 이상~7년 미만	38.9	55.6	55.6
	7년 이상	51.6	58.1	66.7
	F값(유의도)	0.398(0.810)	2.463(0.046)	0.840(0.501)
출생 국	북한	43.5	60.3	67.0
	중국	37.5	50	68.8
	t값(유의도)	-0.470(0.639)	-0.814(0.416)	0.140(0.889)
주거 형태	일반 가정	42.8	59.7	67.5
	그룹홈	44.4	72.2	61.1
	학교 기숙사	46.4	55.4	64.3
	F값(유의도)	0.119(0.887)	0.801(0.450)	0.221(0.802)

주: P < 0.05에서 유의미함.

4. 결론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한청소년이나 국제적 청소년 조사 결과에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부당한 인신 구속에 대한 강한 반대,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은 민주적 가치와 권리 중에서도 자유권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다. 국가 안전

을 위협하는 용의자의 재판 없는 구속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불법구금과 체포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북한적 현상’에 의한 트라우마와 제3국에서의 이동 과정에서 겪은 불안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용의자에 대해서도 재판 없는 구속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남한청소년 및 국제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오는 등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강한 지지와 옹호를 나타내는 양상은 북한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한 불법적 체포와 구금 등 국가폭력에 대한 반작용일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느낀 공포와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과 기업과 정부의 독점적 언론 소유에 대한 둔감한 반응은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와 3대세습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국가와 당에 의해 독점되고 획일화된 북한 언론 현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것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당연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멘탈리티(mentality)를 형성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과 통제에 의해 이러한 ‘북한적 현상’을 오히려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정부에 의한 언론 독점에 대한 반대가 적은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변인은 ‘학교급 및 유형’이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사회정치적 권리 존중’, ‘폭력적 항의 반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의 탈북청소년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중학교와 비교해도 낮게 나타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안학교의 탈북청소년이 탈북 과정에서 장기간의 교육공백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점과 대안학교 교육이 대입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가치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위한 시간과 교육과정의 편성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 중 ‘정치 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두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높아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사회 가치에 적극 동의하면서 변화하고 적응하다가 다시 이전의 가치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적응에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형성된 특정 가치관이 탈북 후 제3국이나 한국에서 초기에 약화되다가 적응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북한식 가치관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²⁶⁾와 비슷한 양상이다. 국가 안전이 위협할 때 개인의 전화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정부가 사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지

26) 이순형·진미정,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14쪽과 1~19쪽.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거주 기간 이외의 다른 변인 예를 들면 학교급이나 유형, 즉 대안학교 변인이나 성별 또는 연령 등의 변인이 통제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의사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지도자 선출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일된 이후의 오랫동안 지속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가관과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한 갈등일 것이다.²⁷⁾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통합 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통일의 과제일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단절되어 갈등하고 대립해 온 남북한 두 사회의 성공적 통합은 제도적 통합만이 아니라 가치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²⁸⁾ 통일은 제도의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²⁹⁾ ‘사람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어떤 가치로 국민을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일된 사회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통일은

27) 전우택, 『사람의 통일』(서울: 오름, 2000), 313~314쪽.

28) 강원택,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파주: 나남, 2011), 172쪽.

29) 최진욱,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권 3호(1996), 290쪽, 273~293쪽.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공존을 실현하는 ‘과정’으로³⁰⁾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의 가치통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한청소년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탈북청소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³¹⁾ 남북한 출신 부부의 경우도 최초에는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남북한은 한민족으로 말도 생김새도 같으므로 ‘설마 그렇게 다르랴’라고 하면서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하게 서로 다른 문화임을 경험하게 되고 도저히 서로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 정도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된다고 한다.³²⁾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람들과 구분되는 새롭게 유입된 다른 집단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한민족으로서 말과 외모의 큰 차이도 없으므로 적응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한민족이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생김

30)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동아시아 발전사회학』(서울: 아르케, 2002), 85쪽.

31)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42쪽.

32) 이민영,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50~155쪽.

새가 같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을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과정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제도와 체제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통합 및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공존 현상이 통일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최종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의 공존 위에서 사회통합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국은 통일의 과정이고 또한 ‘통일의 완성’인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속화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통일된 후에 함께 살게 되는 북한 주민은 그 의식과 가치관 및 행동 방식의 ‘북한적 특성’에 의해 통일된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다문화적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개개인을 민주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 간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과 다문화적 수용성을 포함한 민주 시민성교육을 학교와 사회가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접수: 11월 5일 / 수정: 11월 27일 / 채택: 12월 5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원택,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파주: 나남, 2011).
- 김명정,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원태,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체험 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위정,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Vol.2, No.
- 김은지,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성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훈, 『민주주의를 향한 북한의 정부혁신론』(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서울: 범문사, 1982).
-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김학준, 『한국정치론』(서울: 한길사, 1983).
- 김현철, 『표본의 추출과 분석』(서울: 교육과학사, 2007).
- 류혜영,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 영역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문경철, 『민주시민 자질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밀, 존 스튜어트(John Stuart Mill), 『자유론』, 김형철 옮김(파주: 서광사, 1992).

박정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실업·소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0년 하반기』, 통권 제5호(2011.1.31).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학교통일교육연구팀, 『새터민학생의 입국 초기 학력진단평가 자료 개발』(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6).

안경수, 『북한 지배관계의 형성과 공고화』(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윤여상 외, 『북한 인권 백서』(서울: 북한인권정보데이터베이스, 2012).

이정우,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전우택, 『사람의 통일』(서울: 오름, 2000).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한만길 외,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2) 논문

김신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민영,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순형·진미정,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3권, 제3호(2006).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동아시아 발전사회학』(서울: 아르케, 2002).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최진욱,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권 3호(1996).

3) 기타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2. 국외 자료

Pak, J.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ducational Goals in North Korea: An Analysi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Works on Education* (1946~1986),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Stanford University, 2005.

Schulz, W., et al.,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10).

Torney-Purta, J. et al.,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01].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s Cognition on Democratic Values

Kim, Shin Hee(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ee, Woo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on educational directions for nurturing citizenship of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This analysis is based on surveys conducted on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in South Korea to figure out their current state of cognition on democratic values and main factors of form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on on democratic valu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tend to be highly supportive for the freedom rights. In particular, they tend to strongly object to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of suspects who were charged for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y do not tend to strongly object to media companies which business companies or governments own, and political leaders whose family members take up public offices.

Followings are main factors that affect formulating citizenship of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who are educated by alternative schools in South Korea are characterized that their awareness of democratic value and rights tend to show relatively low than regula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who have stayed in South Korea for longer period of time tend to agree with democratic values stronger.

Fostering youth generation to desirable democratic citizens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South Korean society to maintain more stabilized democracy and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emocrac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for schools and society in South Korea to provide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who have been raised in the socialist system,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develop their citizenship at present as well as in future preparations for intern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integration of their respective social value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schools and society in South Korea make more efforts to provide various ways with contex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by reflecting their characteristics of civic consciousness.

Keywords: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citizenship, democracy, values cognition, civic education, unification of two Koreas, social integration